

탈북청소년의 사회적지지 및 자아존중감이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채경희
충신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

The Impact of Social Support for and Self-esteem of North Korean Adolescent defectors on their Problem Solving Ability

Kyung-Hee Chae

Dept. of Christian Edu, ChongShi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국내 입국탈북자들 중, 청소년 탈북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탈북청소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본 연구의 대상인 탈북청소년들은 한국 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상황을 낯설어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국 사회 적응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 탈북청소년 213명을 대상으로 2017년 06월 14일부터 24일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탈북청소년의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문제해결능력 간의 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탈북청소년 사회적 지지 유형인 정서적, 물질적, 정보적, 평가적 지지는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자아존중감은 탈북청소년의 문제해결능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탈북청소년의 사회적지지 4가지 유형과 문제해결능력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탈북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을 통해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자기개발훈련 등의 실천적인 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Given that the ratio of adolescents among North Korean refugees is increasing, it is the right time to study the present situation of juvenile North Korean defectors. North Korean adolescents tend to find themselves in an uncomfortable situation as they experience unfamiliar lives in South Korea, and act passively in various situations. A proper resolution of such problems in this situation will help them adapt smoothly to South Korean societ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problem-solving abilities of North Korean adolescent refugees based on a survey on 213 North Korean teens which was performed for 24 days beginning on June 14 2017. The study results show that emotional, material, informational, and evaluative support for North Korean adolescent defectors, which is a type of social support, had a positive effect on their self-esteem, and self-esteem in turn had a positive effect on their problem solving ability. In addition, self-esteem had a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our types of social support and problem solving ability of North Korean adolescent defectors. This study suggested a practical plan to improve the problem solving ability of North Korean adolescent defectors for their smooth adaptation to South Korean society, through social support and improved self-esteem of North Korean adolescents, such as program development or self - development training.

Keywords : North Korean Defectors; North Korean Adolescent Defectors; Social Support; Self-esteem; Problem Solving Skills

*Corresponding Author : Kyung-Hee Chae(ChonShin Univ.)

Tel: +82-2-3479-0534 email: khchae@chongshin.ac.kr

Received September 21, 2017

Revised September 25, 2017

Accepted November 3, 2017

Published November 30, 2017

1. 서론

국내 입국탈북자 수는 1990년대를 시작으로 해서 최근 몇 년 사이 국내로 들어오는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의 수가 1만 명을 넘어섰다. 통일부의 탈북자 관련 통계조사에 따르면 연도별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2012년부터 그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누적 탈북자 총수는 2015년 6월을 기준으로 총 28,133명(잠정)에 달한다. 연령대를 살펴보면 30대가 29.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그 다음은 20대 28.1%, 40대 16.3%, 10대 12.1%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탈북자 열 명 중에서 네 명 정도가 10대 청소년과 20대 청년층임을 알 수 있다[1].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가족단위로 입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당연히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탈북자가 늘어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탈북자 관련 연구에 대해 청소년에 대한 사례는 미비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탈북자 정부지원 정책은 대부분은 성인 탈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2].

우리나라는 수천 년 동안 하나의 민족국가였다. 북한 지역도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에 속하므로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탈북자들이 국정원 조사와 남한의 사회적응교육을 마치면 주민등록과 더불어 영구임대주택을 부여받고 기타 정착 지원을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러나 해방 이후 정치, 경제, 사회체제가 다른 사회 속에서 생활해 오는 동안에 우리와 북한 사람들 사이에는 생활방식, 사고방식, 의식, 가치관 등에서 많은 차이가 나타났다. 이들은 먹을 것과 자유를 찾기 위해 한국으로 건너왔지만 외국인 이상으로 한국에서 살아가는 데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탈북자를 한국인과 같은 문화권의 사람들로 여기지만 실은 타문화권에 가깝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화적 차이에서 나타나는 그 괴리감에서 온다고 볼 수 있다[3].

탈북청소년은 남한에 입국한 후 일상에서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을 낯설어하며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으며[4], 학교에서 겪게 되는 또래들과의 갈등, 경제관념의 부족, 자신감 저하 등으로 인해 겪는 문제가 일상에서 겪게 되는 대표적인 문제로 볼 수 있다[5]. 또한, 탈북청소년은 남한이라는 새로운 곳에서 다양한 갈등을 경험하면서 삶에 대한 자세나 문제해결 방법, 문제대처 능력을 배우게 될 것이며, 여러 형태의 성공과 좌절

을 함께 경험하게 될 것이다.

탈북청소년이 남한에서 일상의 문제를 접했을 때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여 문제행동을 보이는 것은 개인적인 기능이 낮아서라기보다 갑작스럽게 새로운 사회에 편입되어 나타나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탈북청소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한사회에서 안정적인 인적 자원을 제공해야 하며 안정적인 인적 자원으로 부터의 긍정적인 지지가 제공되어야 한다[6]. 탈북청소년 역시 사회적 욕구를 가지며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사회화되고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되며, 다른 사람과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 속에서 사회적 지지를 얻게 되는데, 이는 탈북청소년 개인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능력을 스스로 높여 궁극적으로 남한사회적응에 기틀을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된다. 특히, 사회적 지지는 안정적인 인적 자원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개개인의 발달을 증진시키고 발달단계에 따른 과업을 성취하도록 도울 뿐 아니라 남한에서 생활하며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탈북청소년이 주위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회적 지지’를 살펴보고, 사회적 지지가 이들의 자아존중감과 문제해결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겠다.

2. 이론적 배경

2.1 탈북청소년이 겪는 남한사회의 문제점

탈북청소년의 선행연구들은 탈북청소년의 전반적인 사회 적응에 초점을 두어 적응 및 부적응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그치고 있고 이들의 욕구를 파악하는 탐색적인 연구가 다수이다. 특히 청소년이라는 특성 때문에 학교 적응에 대한 연구가 다수이다. 선행연구를 통해 탈북청소년이 남한사회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 및 적응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탈북청소년들은 탈북 과정에서 겪은 경험이 미치는 각종 부정적인 영향들로 인해, 그리고 기존에 살던 사회와는 다른 한국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인해 한국 사회에서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어려움들을 겪고 있으며, 우울증상, 불안증상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정체성의 혼란 등과 같은 심리적인 문

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탈북청소년은 자기들끼리는 잘 어울리고 서로 간에 정서적 지지, 공통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만 남한친구와는 자신의 진정한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보편적이며[7], 대다수가 북한출신의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서로의 지지원이 되고 있어 이들의 사회관계망이 열악함을 알 수 있다[8]. 또한, 탈북청소년이 문화적응에서 겪는 어려움을 알아보면 탈북청소년의 대부분이 새로운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은 문화 분리 유형 및 문화주변형에 속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남한거주 1-2년 후에 적응과정에서 더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

탈북청소년의 문화심리적 특성과 차이에 관한 연구를 보면 탈북청소년은 학교나 여타의 복지지원, 직장 등을 통해서 남한사회와 제도적으로 연결되어있지만 실제 그들의 일상적 사회세계는 상당히 고립되어 있어 일종의 ‘섬’으로 남아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이들에게 남한의 문화와 규범을 적용하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남한사회의 소수자를 수용하는 관대함이 필요하다[10].

탈북청소년들은 타인에게 자신이 탈북자임을 밝히려 하는가의 문제와 한국 사회에서 자신은 누구인가 하는 문제로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는데, 탈북청소년 중 한 명은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를 보고 “북한에서 늘 인민군이 이기고 남한 군인을 죽이거나 무찌르는 장면만 보다가 오늘 남한 군인이 인민군을 죽이고 때리는 장면을 보니 기분이 나쁠습니다. 그래서 순간 놀랐습니다. 북한정권이 너무 싫어서 죽을 각오로 나왔는데 영화에서 인민군들이 당하는 것을 보고 속상한 내가 남한 사람인지 북한 사람인지 갑자기 헷갈렸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라고 말했다. 남한에 살면서도 자신이 남한사람이라고는 생각되지 않고 그렇다고 북한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11]. 이들은 문화의 차이라고 하는 차이를 경험하게 되며, 그로 인해 의사소통 또한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2.2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의 개념은 인간이 사회적인 존재라는 속성으로부터 시작된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며,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충족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를 갖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인간은 항상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고 이를 통해 지지를 얻으면서 그 욕구

를 충족하게 된다. 이렇듯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얻게 되는 사회적 지지는 그 근본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연관되어 있다는 데에서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12].

이러한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구조적인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연구되었다. 구조적인 측면은 개인이 맺고 있는 대인관계 구조의 객관적 측면을 말하는 것으로, 한 개인이 얼마나 많은 대인관계를 맺고 있으며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지의 양적 크기를 말한다[13]. 기능적인 측면은 개인 자신이 맺고 있는 실제적인 대인관계의 질을 어떻게 평가, 지각하고 있는가를 측정해서 사회적 지수로 삼는 것이다.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측면에서는 단순히 지지의 양적인 측면을 파악할 수 있었다면 기능적 측면에서는 개인의 지원체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지를 제공하며, 제공된 지지를 통해 어떠한 욕구가 충족되는지를 알 수 있다[14].

사회적 지지는 객관적인 사회적 지지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객관적인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대인관계로부터 실제로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자신이 필요로 할 때 주변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말한다[15]. 일반적으로 객관적 지지 자체보다는 개인이 지각한 지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개인에게 객관적인 지지 자원이 있다는 것과 그가 지지를 받았다고 지각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으며, 외부에서 지지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지로 지각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이 진정한 지지로써의 가치가 없다[16].

탈북청소년의 경우는 북한에서의 가족, 교사, 이웃, 친구 등 이전 삶의 배경에서 소유했던 사회적 지지원과 모두 단절된 상태에서 남한에서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을 통해 사회적 지지를 다시 형성해야 하며, 이들은 남한의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사회적 지지를 갖고 있으며 특히 남한에 단독 입국한 무연고청소년의 경우 매우 열악한 사회적 지지를 갖게 된다. 따라서 이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하며 각자의 안정된 사회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며 다양한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

2.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이란 개인이 유능하고, 중요하고, 성공적이고, 가치 있다고 믿는 것으로 ‘자존감’으로 줄여서 많이

사용하며, 자존감은 다양한 특성에서 자신을 평가하여 나타난 자기가치에 대한 자신의 감정 또는 관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신의 평가수준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자존감은 한 개인이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를 표시하는 가치판단이며,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주관적인 경험인 것이다[17]. 이런 자존감은 사적인 관계형성을 위한 대인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고 개인의 건전한 인성과 성격 발달의 기반이 되며, 목표로 하는 성취에도 영향을 끼치므로 인간이 궁극적인 삶의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높은 자존감이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18-19].

Rosenberg(1965)는 인간은 자신의 행동이 목적을 향해 나아가거나 자신이 가치를 부여 받은 존재임을 느끼게 될 때 자존감을 경험한다고 하였으며, 높은 자존감의 특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약,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관용에 있어 높은 수준을 나타내며, 자신에 대한 가치와 적절한 존경심을 갖게 된다[20]. 이와 같이 자존감은 자기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보는 긍정적인 평가차원으로써, 개인의 바람직한 환경적응이나, 건전한 인성 발달, 나아가 긍정적인 자기실현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4 문제해결능력

문제해결은 문제를 변화시키는 인지적 활동으로 현재에서 목표의 상태까지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정의된다[21]. 인간에게 문제해결이라는 것은 호흡하는 것처럼 정상적이고 기본적인 활동이다. 인간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목표를 얻기 위해 이유와 논리를 사용하려는 인지적 능력을 갖고 있으며, 영아기에서 성인기까지 복합적인 방법으로 발달한다.

Perlman(1957)은 ‘삶 자체’를 문제해결 과정이라고 보았고, 인생은 지속적인 변화와 움직임을 통해 인간이 자신을 외부물체에 적응하는 과정, 또는 그 외부물체를 자신에게 적응시켜서 최대의 만족감을 얻어내는 과정이라고 언급하였으며, 그에 의해 소개된 문제해결 이론은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 능력과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22]. 문제해결 이론은 197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개발되어 온 체계론적 관점에 큰 영향을 받았고 Compton과 Galaway(1999)에 의해 계속해서 발전하였다[23]. 이러한 문제해결이론은 자아심리학, 문제해결원칙, 역할이론 등을 기반으로 기초를 다지며, 그 외에 체계이론을 주요한 기초 지식으로 활용하여

성립되었다. 특히 문제해결 이론은 사회복지기관과 자아의 의지를 강조하는 기능주의적 입장과 정신분석이론의 영향을 받은 진단주의적 입장의 오랜 논쟁을 종식시키는 통합적 실천모델로 주목 받는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다양한 문제에 부딪치게 되는데, 쉽고 간단한 문제도 있지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도 있다. ‘사회적 문제해결’이란 이렇게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마주치게 되는 문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적응적인 대처 반응을 찾아내거나 발견하려는 인지적·정서적·행동적 과정이다[24-25]. 사회적 문제해결(Social Problem Solving)은 ‘대인적 문제해결(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개인적 문제해결(Personal Problem Solving)’등의 표현과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지만 개인문제, 대인관계, 소집단의 문제만이 아닌 실생활의 모든 종류의 문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사회적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회적 문제해결’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26].

3. 조사설계 및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 H1. 탈북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정서적, 물질적, 정보적, 평가적)는 자아존중감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 H2. 탈북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문제해결능력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 H3. 탈북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정서적, 물질적, 정보적, 평가적)와 문제해결능력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 H4. 탈북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정서적, 물질적, 정보적, 평가적)와 문제해결능력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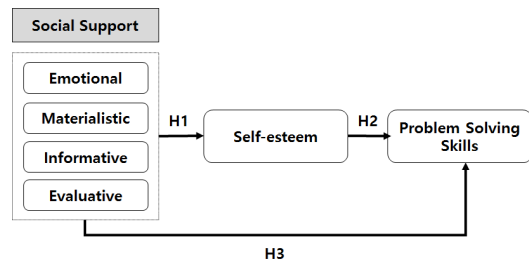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3.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하여 탈북청소년(10세-25세)을 대상으로 남한 내 적응교육기관인 ‘하나원’을 퇴소한 후 현재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으로 한정되었으며, 표본추출 방법에 대해서는 북한이탈 청소년관련 학교, 복지관, 단체 등의 실무자의 도움을 받아 연구의 원칙상 확률표집 방법을 사용해야 하였으나, 탈북청소년이라는 특수성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e)방법을 사용하였다. 자료수집은 2017년 6월 14일부터 24일동안 이루어졌고, 총 213개의 설문지가 수집되었다. 통계처리는 SPSS 23.0과 AMOS 23.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측정문항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과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신뢰성 검증을 위해 Cronbach’s a를 산출하였다. 각 변수에 대한 상관관계분석을 위한 피어슨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탈북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관계성 연구를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을 실시하였다.

4. 실증분석

본 연구의 측정도구인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문제해결능력 요인의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적 지지의 경우,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평가적지지, 정보적지지, 정서적지지, 물질적지지의 모든 요인들의 요인부하량이 0.5 이상으로 나타나 각 요인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Cronbach’s α값은 평가적 지지가 0.900, 정보적지지가 0.865, 정서적지지가 0.770, 물질적지지가 0.785로 나타나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단일차원으로 나타났고, 요인부하량이 모두 0.5 이상으로 나타났고, Cronbach’s α값은 0.897로 나타나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해결능력의 경우,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부정적 문제지향성, 충동부주의 문제지향성, 합리적 문제지향성, 긍정적 문제지향성, 회피 문제지향성의 모든 요인들의 요인부하량이 0.5 이상으로 나타나 각 요인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Cronbach’s α값은 부정적 문제지향성이 0.893, 충동부주의 문제지향성이 0.802, 합리적 문제지향성이 .881, 긍정적 문제지향성이

0.729, 회피 문제지향성이 0.798로 나타나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변수의 χ^2 , GFI, AGFI, RMR, NFI 등의 적합도가 권장수준에 부합하고 모든 관측변수에 대한 표준화 요인부하량(λ)은 0.647에서 0.956으로 나타나 잠재변수에 대한 수렴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측정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계수를 사용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측정도구 간 상관계수를 검토하여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상관계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나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 검정을 위한 결과는 다음의 Table 1과 같다. 연구모형의 검정을 위한 모형적합도는 $\chi^2=1305.708(df=309, p<.001)$, GFI=.855, AGFI=.823, CFI=.886, RMR=.030, NFI=.857, RMSEA=.079로 권장수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Validation results of the hypothesis

Hypothesis		β	S.E.	C.R.	P	Sig.	
Emotional	→	Self-esteem	0.451	0.079	6.465	.000	Sig.
Materialistic	→		0.145	0.071	1.889	.059	Sig.
Informative	→		0.192	0.054	3.622	.000	Sig.
Evaluative	→		0.194	0.044	4.422	.000	Sig.
Emotional	→	Problem Solving Skills	0.232	0.055	3.802	.000	Sig.
Materialistic	→		0.202	0.047	3.216	.001	Sig.
Informative	→		0.141	0.036	3.222	.001	Sig.
Evaluative	→		0.136	0.029	3.762	.000	Sig.
Self-esteem	→	Problem Solving Skills	0.396	0.048	6.605	.000	Sig.

*** $p<.01$, ** $p<.05$, * $p<.10$

분석결과, 사회적 지지 요인 중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정서적지지, 평가적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의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채택되었다. 또한 탈북청소년의 사회적 지지는 문제해결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정서적지지, 평가적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의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은 채택되었다. 탈북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문제해결능력에 유의한

정(+)¹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는 채택되었다. 가설 4를 검증하기 위하여 Table 2는 사회적 지지와 문제해결능력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정을 위한 분석결과이다. 사회적 지지의 4가지 하위요인과 문제해결능력에서 자아존중감에 대한 간접효과는 모두 $p < .05$ 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문제해결능력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에 대한 매개효과를 각각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Sobel-test를 실시하였으며[27], 분석결과는 다음 Table 3과 같다. 사회적 지지중, 정서적지지, 물질적지지, 정보적지지, 평가적지지와 문제해결능력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모두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4인 ‘탈북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문제해결능력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Table 2. Indirect effect analysis of self-esteem

Independent Variable	parameter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Path factor	p	path factor	p	Path factor	P
Emotional	Problem Solving Skills	0.232	0.004	0.179	0.004	0.410	0.003
Materialistic		0.202	0.01	0.087	0.018	0.289	0.003
Informative		0.141	0.005	0.076	0.003	0.217	0.003
Evaluative		0.136	0.006	0.077	0.004	0.213	0.007

*** $p < .01$, ** $p < .05$, * $p < .10$

Table 3. Sobel-test result of self-esteem

Independent Variable	parameter	Sobel-test	
		Z-value	P
Emotional	Problem Solving Skills	4.619	0.000
Materialistic		2.815	0.009
Informative		3.183	0.001
Evaluative		3.657	0.000

*** $p < .01$, ** $p < .05$, * $p < .10$

5. 결론

본 연구는 탈북청소년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면서 가족, 친구, 사회복지사 등으로부터 제공받는 사회적지지(정서적, 물질적, 정보적, 평가적)와 그들의 자아존중감, 문제해결능력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탈북청소년의 지지원에 따른 정서적, 물질적, 정보적, 평가적 지지 유형은 탈북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탈북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에서 적응할 때에 주변사람들로부터 다양한 지지를 받게 된다면 그들은 자신에 대한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탈북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문제해결능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서술한 것과 동일한 결과로써, 탈북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남한에서 생활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탈북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유형인 정서적, 물질적, 정보적, 평가적 지지와 문제해결능력 간의 관계에서 탈북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모든 사회적지지 유형에서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탈북청소년들에게 건강, 학업에 대한 정보, 금전적인 도움, 심리적인 지원 등의 사회적 지지원은 탈북청소년의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또한 탈북청소년들이 낮은 환경에서 일상의 문제를 회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자아존중감이 높다면, 남한사회에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더욱더 향상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도출된 시사점은 탈북청소년들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지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천적 방안으로 탈북청소년이 복지관이나 지원 단체의 사회복지사를 통하여 그들이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 및 물질 등을 제공받고, 복지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지지원을 통하여 탈북청소년들이 남한에 적응하는데 주춧돌이 되어 줄 것이다.

또한 탈북청소년이 남한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이들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웃을 돕는 봉사활동 프로그램, 주변인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남한사회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체험 프로그램, 자기 자신과 타인, 가족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상담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탈북청소년들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며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수많은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Unification, North Korean defectors' policy, <http://www.unikorea.go.kr/>(Search date: July 15, 2017)
- [2] Y. L. Jung, S. H. Yoo,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Thinking Changes Experienced by North Korean Youth Refugees during the Adjustment to South Korean Society", *Multicultural Education Studies*, vol. 7, no. 1 pp. 51-75, 2014.
DOI: <https://doi.org/10.14328/MES.2014.03.31.051>
- [3] Y. S. Park,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support and social adjustment of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s in South Korea*. Doctoral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of Korea, 2006.
- [4] N. H. Oh, *Case Study about Adjustment in South Korea of Youth Defector*.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2003.
- [5] C. H. Jang, "Social Work Approach for the Adjustment of children and Youth from North Korea", *Journal of Korean Social Welfare*, vol. 5 pp. 203-235, 2001.
- [6] Y. S. Park, op. cit., 2006.
- [7] J. S. Hwang, S. Y. Jeon, "Adaptation Support Plan for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Korean Policy Sciences Review*, vol. 8, no. 3 pp. 223-249, 2004.
- [8] S. H. Jung, *A Study on the Social Network of North Korean Youth Defectors*.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2002.
- [9] E. B. Gil, S. H. Mun, "The policy implications and problems on social adjustment of North Korean youths in South Korea.",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0, no. 4 pp. 163-186, 2003.
- [10] H. H. Jung, "North Korean Refugees' Emotionality and Its Social Implications : A Perspective from Cultural Psychology", *Cross-Cultural Studies*, vol. 11, no. 1 pp. 81-111, 2005.
- [11] J. G. Cheong, "An Investigation into the Ways of Thinking of the students from North Korea", *Journal of Research Institute for Unification and Multi Cultural Education*, vol. 4, no. 1 pp. 79-97, 2011.
- [12] M. H. Han, A. J. Yoo, "The Relation of Stress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to Problem Behavior",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 17, no. 1 pp. 173-188, 1996.
- [13] M. Barrera, "Distinctions between social support concepts, measures, and model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14, no. 4 pp. 413-445, 1986.
DOI: <https://doi.org/10.1007/BF00922627>
- [14] M. S. Kim, *The relation between social support and maladjustment of children*.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of Korea, 1994.
- [15] E. Wethington, R. C. Kessler, "Perceived support, received support, and adjustment to stressful life event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pp. 78-89, 1986.
DOI: <https://doi.org/10.2307/2136504>
- [16] J. S. House,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1981.
- [17] S. Coopersmith,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Consulting Psychologists Pr., 1967.
- [18] P. H. Mussen, J. J. Conger,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 1956.
- [19] Y. J. Hong, *The effects of self-esteem, stress and parenting style on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2001.
- [20] M. Rosenberg,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DOI: <https://doi.org/10.1515/9781400876136>
- [21] R. E. Mayer, M. C. Wittrock, "Problem solving", *Handbook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2 pp. 287-303, 2006.
- [22] H. H. Perlman, *Social casework: A problem-solving proces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7.
- [23] B. R. Compton, B. Galaway, *Social work processes*. Wadsworth Pub Co., 1999.
- [24] T. J. D'Zurilla, A. M. Nezu, "Social problem solving", *Advances in Cognitive-behavioral Research and Therapy*, vol. 1 pp. 201-274, 1982.
DOI: <https://doi.org/10.1016/B978-0-12-010601-1.50010-3>
- [25] T. J. D'Zurilla, A. M. Nezu, "Problem-solving therapy", *Handbook of Cognitive-behavioral Therapies*, vol. 3 pp. 197-225, 2010.
- [26] T. J. D'Zurilla, A. M. Nezu, op. cit., 1982.
- [27] R. M. Baron, D. A. Kenny, "The moderator -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1, no. 6 p. 1173, 1986.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51.6.1173>

채 경 희(Kyung-Hee Chae)

[정회원]



- 2008년 2월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 석사
- 2010년 8월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 박사수료

<관심분야>

북한사회, 북한교육, 탈북청소년